



동서학동 주민센터, 새봄맞이 화단 정비

완산구 동서학동(동장 노미숙)에서는 지난 20일 주민센터 앞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겨우내 비어있던 화단을 정비하고 봄꽃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지, 비올라, 크리스세럼 등 화훼류 1,000여 분이 식재되었으며, 봄을 맞아 아름다운 꽃으로 화단을 조성해,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물론, 코로나-19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신장내과 병동·인공신장실 새단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내 병동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환자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내원객들의 동선과 진료서비스 연계성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본관 4층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본관 4층에는 본관 1층의 인공신장실과 응급센터 6층의 신장내과 병동이 이전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사랑의 헌혈운동' 펼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움...병원 30여명 직원들 자발적 동참

예수병원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 행사를 벌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급격히 감소해 국내 의료기관의 원활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예수병원 백수경 진료처장과 의료진들이 이를 해소하고자 뜻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헌혈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사랑의 헌혈 운동'은 예수병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설대위기념연구동 앞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헌혈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시작 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1회용 채혈 바늘을 사용하는 등 헌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됐다. 예수병원의 '사랑의 헌혈 운동'에는 백수경 진료처장, 홍부외과 서연호 과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



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때에 헌혈 혈액에 담긴 마음의 온기가 따뜻한 이웃 사람으로 이어져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 전 직원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헌혈 운동에 참여한 진료처와 직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군산지사, 군산의료원에 응원물품 지원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정관영, 위임장 이수길)는 전북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에 의료진 격려를 위한 간식을 비롯한 2백만원 상당 응원물품을 지원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환자들도 입원하고 있어, 그야말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격려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물론 사람이기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업무가 힘들고 지치지만 이렇게 응원을 받을 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시북부청사, 코로나19 예방 무인소독기 설치

익산시 미래농정국(국장 최봉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열에 위치한 익산시청 북부청사 현관에 무인소독기를 설치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하고 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북부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관에 무인소독기를 설치했고, 무인소독기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소독제가 분무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며, 또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출입문에서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도입한다. 지난 20일 공단에 따르면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시각장애 인이나 신장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교통약자 특장차량(이지폴)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공단은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3월 중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뒤 4월 말부터 총 15대의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요금은 기존 이지폴과 동일하다. 공단은 현재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교통약자 특장차량을 총 55대 운영 중이다. 공단은 또 노후 특장차량 9대를 상반기 중 교체해 교통약자에게 더욱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도입으로 차량 15대를 증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 분산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특장차량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 1등 도시의 실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 신동지구대,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앞장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위반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PC방 등 청소년 운집 장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범죄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홍보활동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유시간이 늘어나 일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PC방, 코인노래방, 룸카페 등 운집 장소 주변 거점 근무 및 탄력 순찰로 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거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송태석 지구대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청소년 관련 범죄 취약 요소 파악 및 주기적인 탄력 순찰 통해 청소년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소방서, 다중시설이용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포함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익산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5-811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65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6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진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